

2020. 9. 29. [화] 언론보도

KBS

2020년 09월 28일 (월)

종합

860km 경기도 둘레길 내년까지 조성



860km 경기도 둘레길 내년까지 조성

동·식물 천국 'DMZ 평화누리길'...보고서 발간



◀ 명커 ▶

DMZ 비무장지대는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동·식물들이 사는지 종합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DMZ를 따라 조성된 평화누리길의 생태 환경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해 보고서로 내놨습니다.

윤지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천연기념물 재두루미가 유유히 떼를 지어 날아갑니다.

멸종위기종 독수리는 큰 낚싯줄로 당당히 비행하며 먹이를 찾고, 흐드러지게 핀 지청개꽃은 바람에 춤을 춥니다.

DMZ 평화누리길에 사는 동·식물들입니다.

생태계의 보고라고는 하지만 군사적 문제 등 제약 때문에 그동안 원활 파악이 어려웠는데, 최근 3년 만에 DMZ 생태환경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평화누리길이 지나는 김포와 파주 등 4개 시·군 189km 구간에는 식물 1천120종과 조류 150여 종 등 모두 1천280여 종의 동·식물이 사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식물은 한반도에서 자라는 4천여 종 가운데 25%가 서식하고 있었고, 저어새와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 동·식물도 다수 관찰됐습니다.

[이동열/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DMZ 생태자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많지 않았습니. 이번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됐고요, 잘 관리 보존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훌륭한 생태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경기관광공사는 이번 조사결과를 평화누리길 12개 코스별로 정리해 보고서에 담은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점검지역 4개 시군별 생태자원 지도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여행길 인증 휴대전화 앱으로 코스별 대표 동·식물 정보를 제공해 관광객들이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지운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84-4000
- ▷ 이메일 mbcjebo@mbc.co.kr
- ▷ 카카오톡 @mbc제보(윤지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보장사치들 이제 퇴출시켜야"

문 대통령 행적 '세월호 7시간' 및 안철수 대표 등 비판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야당 인사들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세월호 7시간'에 빗대 비판한 것에 대해 "안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여기는 안보장사치들은 이제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일을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최순실이라며 가당치도 않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본질에 무지한 망언이지, 쫓몰의 국민 명령을 정쟁의 도구로 전략시키는 국민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탓에 일지 않아도 될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인재였기 때문"이라며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게 돼 결단의 시간이 늦어졌고, 구조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사람들을 의전에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 이후 유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적 반대자로 여겨 탄압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국민이 분노한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부지사는 또 "이번 사건의 경우는 상황 발생 시점부터 지휘계통을 통해 국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며 "무정확한 첩보를 정식 정보화 하는 과정에 소모된 시간을 비정상적 권력의 공백이라고 주장하는 건 국가 안보보다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릴 때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지사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의 과정이 다시 남북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며 "안보장사치들이 판치는 정치는 아니라, 국민의 생명에 희생당하고 평화가 온전치 못한 이 지긋지긋한 분단 현실을 아파하는 정치가 간절해지는 순간"이라고 글을 마쳤다.

psygod@cbs.co.kr

한국경제

프린트단기

英 라브 외무 이번 주 방한...DMZ 방문

입력 2020-09-29 00:07수정 2020-09-29 00:07



사진=연합뉴스

영국 내각의 '넘버 2'이자 사실상의 부총리인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이 이번 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외무장관이 이번 주 한국과 베트남을 방문한다"면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있는 DMZ를 방문하고, 영국-베트남 보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반도를 나누는 DMZ가 1953년 만들어졌으며, 북한군 100만명 이상이 인근에 주둔해 세계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국경 중 하나라고 밝혔다.

라브 외무장관은 브리스 존슨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했을 때 총리 대행 역할을 맡는 등 내각에서 사실상의 부총리 역할을 하고 있다.

라브 장관에 앞서 이달 중순 캐리사 메이 영국 전 총리가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보 장사치 퇴출하라"

▲ 이시온 | 2020.09.25 19:26 | 1000 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정부를 맹비난한 인천수 국민 의당 대표에 지적을 날렸다. 인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대동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만든, 동지문 헌 장에 김음해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최서원)"이라고 정부를 거남현 발언을 뺏바친 것이다.

이 부지사는 28일 SNS를 통해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사건에 대해 이래적으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일용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고, 대동령의 참모들이 최순실이라며 가당치도 않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경솔한 발언을 남아서서 세월호 참사의 본질에 무지한 망언이자, 촛불의 국민 명령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국민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국민이 분노한 것은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탓에 있지 않아도 될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인재였기 때문이다"면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게 되어 결단의 시간이 늦어졌다"라고 했다. 이어 "구조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사람들을 의전에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의 과정이 다시 남북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면서 "안보장사치들이 판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하생당하고 평가 온전치 못한 이 자그마한 분단 현실을 이피하는 정치가 간절해지는 순간이다"고 강조했다.